

어명소 제2차관, “폭설·한파 피해 없도록 총력 대응” 강조

- 15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·도로공사(수원지사) 제설 현황 점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 국토관리사무소 및 도로공사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관련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먼저,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찾은 어 차관은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후, “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”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지난달부터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하여 24시간 비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,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-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 전광표지(VMS) 등을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어,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(수원지사)에 도착한 어 차관은 종합적인 대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“수도권은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하고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.

2022. 12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